인생 포기자

의과대학 의학과 권 이 혁

근래에는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인생 포기자(人生抛棄者)'라는 단어를 들어 본 일은 없다. 나의 과문의 탓이겠지만 이 단어가 마치 나의 신조어 같이 생각되기도 한다.

인생과 생활을 혼동해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인생과 생활은 차원이 다르다. 인생은 사람의 일생을 말하는 것이니 여기에는 철학적 해석이 반드시 붙게 마련이다. 그런데 아무런 인생철학이나 인생관을 갖지 않고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인생에 비하면 생활은 보다 구체적이다. 기본적으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고 사는 데에 전력을 다하는 생명유지 방법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생활수준에 차이가 생긴다. 목에 풀칠하는 것으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차원 높은 인생철학이나 인생관이 있기 힘들다.

부유한 생활자는 사정이 다르다. 생활을 하면서 생활관도 끌어 낼 수 있고 생활철학도 내세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관이나 생활철학이 일반적으로 논의 되는 소위 인생관이나 인생철학과 흡사하다. 그러나 인생관이나 인생철학이 부유한 생활자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난한 엘리트들이 말하는 인생관이나 인생철학이 후세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앞으로 가야할 길을 말해주기도 한다. 빈곤한 환경에서 얻은 엘리트들의 인생관이나 인생철학이 값지다고 평가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인생에는 깊은 내용과 신비스러운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우리들의 생활은 오히려 평범한 것이며 인생 역시 그러한 것이다. 극적인 사건이 개입한다든가 드라마틱한 일이 발생하여 떠들썩한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인생에는 깊은 뜻과 신비성이 있는 법인데 어찌된 셈인지 근래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노인층에서 증가하는가 하면 젊은 층에서도 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자살은 인생의 초기단계에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니 문제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인생포기의 방법의 하나가 자살인 까닭에 자살과 인생 포기자는 동의어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왠지 나에게는 '인생 포기자'라는 단어가 '자살'보다는 더욱 깊은 뜻을 갖고 있는 듯이 사료된다.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자살이라고 한다. 자살의 원인으로는 우울증 · 불명예 · 사회정화 · 철학적 사유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약물 중독 때문인 경우도 있다. 자

살에 대한 관점은 문화 · 종교 · 법 · 사회제도에 따라 다양하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자살을 죄나 부도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범죄로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수치에서 벗어나야 하거나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명예로운 행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자살하는 삶을 유서로 남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서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자살을 부도덕한 행위로 규정한다. 서구에서는 기독교 등의 영향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자살을 범죄로 여긴다. 아시아에서는 이슬람교와 불교, 힌두교에서 자살에 대하여 부정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교 원리파에서는 자살폭탄 등을 통하여 자살을 신성시하기도 한다. 옛 일본 사무라이들은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불명예로 생각하고 할복 자결하는 것을 명예로 여기기도 했다.

자살의 원인에 관하여는 쓸 것이 한없이 많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옛날 이야기를 한두 가지 소개한다면 '크레오파트라의 자살' · 고대 로마와의 전쟁에서의 패배로 로마군에게 쫓기던 한니발 장군의 자살 · 네로 황제가 스승인 세네카에게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살을 명했던 일등이 유명하다.

자살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08년에 이어 2009년 조사에서 도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2009년에는 전체 사망 원인 중 자살이 6.2%를 차지하여 암(28.3%), 뇌혈관질환(10.5%), 심장질환(9.0%)에 이어 제4위였다. 하루 평균 42.2명, 즉 34분마다 한명이 자살한 셈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건수가 31명으로 2008년보다 19.3%가 증가했다. OECD 평균은 11.2명에 불과하다. 2009년에는 자살 사망자가 모두 1만 5,413명으로 2008년보다 19.9%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5년간의 집계 중 가장 큰 수치였다. 2010년에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최고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명사들의 자살: 근래에 와서는 유명한 가수 · 영화배우 · 탤런트 등의 자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중 세분에 대해서만 소개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탤런트 최진실(40)이 2008년 10월 2일 숨진 채 발견되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었었다. 자살 이유로서는 안재환 자살 사건과 관련한 악성 루머로 최진실이 괴로움을 토로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루머의 내용을 소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유명했던 탤런트가 자택 샤워부스에 압박 붕대로 목을 맨 것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확실하다.

그 뒤 2010년 3월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39)이 자살했다. 탤런트인 그의 자살 원인은 우울증과 스트레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나인 최진실 씨가 자살한 후 우울증에 빠졌고 병원 치료 등을 거부하고 약물 복용을 해 왔었다고 한다. 스트레스로 머리가 아프다며 만나던 사람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고 한다.

지난 2010년 6월 30일에는 탤런트 겸 가수 박용하(33)가 자택에서 목매어 자살했다. 한류

탤런트 겸 가수로서 활약했던 박용하는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으며 장례식에서 일본 팬들 200여 명이 건너와 애통한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시청하고 나 자신이 상당이 놀랐다. 그렇게까지 한국인 탤런트나 가수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내 자신이 모르는 감성이 그들에게는 있는 모양이다. 그의 평소의 행실로 보아 자살을 택할 리 없다는 것을 지인들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다.

경제적 원인에 관하여도 알아봤지만 경제적으로 곤란에 빠진 일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부친의 투병, 사업과 연예활동을 병행하는데 따르는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한 충동자살이었다고 밝혔다.

인생관: 인생의 본질 · 의미 · 가치 등에 관한 총체적인 견해를 인생관이라고 한다. 인생관은 세계관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인생관에는 비관주의와 낙천주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유물론과 유심론(唯心論), 무신론과 유신론(有神論) 등이 있다. 비관주의는 염세주의 · 허무주의 · 무상관(無常觀)으로 나누어지는데, 인생관은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 또 환경과 시대에 영향을 받고 지배된다고 할 수 있다. 인생관은 세계관과 관련이 깊다. 인생관이 주관주의적인데 대하여 세계관은 객관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세계관에도 주관주의적인 것도 있고, 인생관에 객관주의적인 것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이 단 한 번의 것이며, 역사 속에서의 위치가 우연적인 것인 이상, 생명과 생활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은 사라지는 일이 없다. 인간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는 질문은 만인의 것이다. 그 결과로 철학이나 종교, 또는 이데올로기가 추구된다. 인생관이 특히 의식되는 것은 개인이 불행을 당하고, 사회가 모순에 부딪쳤을 때이다. 내가 책을 읽던 중에 인상적이었던 자살의 하나가 오토 바이닝거(Otto Weininger, 1880-1903)의 자살이다. 그는 오스트리아인 철학자이며 사상가인데 "천재가 아니면 죽는 것이 낫다"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권총자살을 했다. 철학적 사유로 인한 자살 사례의 하나다. 그는 1902년 빈 대학을 졸업하고 다음 해에 졸업논문을 더 보완하여 발표한 후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자살했다.

우리들은 가끔 다른 분들의 인생관이나 인생철학을 듣거나 읽을 때가 있는데 때로는 자신의 뜻과 맞아떨어지는 내용과 만날 경우가 있다.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하는 경우는 차치하고, 가난하면서도 당당하게 발표하고 있는 엘리트들의 인생철학이나 인생관에는 음미할만한 것이 많다. 나에게는 '자살'이라는 표현보다 '인생 포기자'라는 표현을 중요시하고 싶은 생각이 더욱 크다.

'행복전도사'로 알려진 작가 겸 방송인 최윤희(63) 씨가 2010년 10월 7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모텔에서 남편 김모(72) 씨와 함께 유서를 남기고 목매어 자살했다. 최씨는 KBS, SBS 등에 고정 출연하는 스타강사로서 자신의 경험담을 웃음으로 풀어내 '행복전도사'로 불려왔다. 그는 『행복 그거 얼마예요』 등 희망과 행복을 주제로 20여 권의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유서에는 “남편은 건강하지만 심장과 폐질환으로 아픈 나를 혼자 보낼 수 없어 같이 떠나 주는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내용과 “나를 신뢰하고 사랑해준 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고맙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행복전도사’의 동반자살은 우리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